

Art



아트인컬처
February 2014

Re-mapping Asia/
지금, 아시아미술은?
글로벌 아티스트 40인을 만나다

Artist/
피에르 위그+필립 파레노

Theme Special/
애니미즘의 귀환



최윤 <국민 매니페스토>



김상길 <Accession Number>



제4회 공장미술제 포스터



이타미 준

미래가 끝났을 때展

2. 6~5. 10 하이테크렉션

선배 작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젊은 작가 11인의 기획전이 열린다. 참여작가는 강정석 김다움 김동규 김실비 로와정 서보경 이병수 이양정아 정승일 최윤 함정식. 전시 제목은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의 저서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제1장 제목을 인용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삶은 불안정해진다든 내용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모습이란 점에 주목한다. 선정 작가에 대한 선배의 코멘트가 도록에 포함됐다.

NASA: Countdown to Infinity展

2013. 11. 16~2. 5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계원예술대 교수이자 사진/이미지/기계비평가 이영준이 기획한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과학기술 사진전. 1958년 설립된 NASA는 65년 여간 진행한 수많은 프로젝트에 관한 이미지 자료를 홈페이지에 기록보관하고 있다. 그 중 역사적/과학적/미학적 가치가 있는 사진으로 선별했다. 또한 첨단기술의 위상에 관해 작업해 온 김상길 작가의 사진도 함께 선보였다.

제4회 공장미술제展

1. 10~24 문화역서울284

공장미술제는 미술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년작가의 실험정신을 집중 조명한다. 올해는 작가 91인의 작품 500여 점을 선보였으며, 처음으로 해외학생 13인이 동참했다. 개막 당일 뮤직 레이블 '오레코즈'가 주관한 시각예술-사운드 콜라보 파티 'MIXMIX'를 진행했다. 공장미술제는 1999년 경기도 이천시 공장 일대, 2000년 샘표 간장 공장, 이후 12년 만에 작년 충남 서천군 장항을 일대의 창고에서 다시 개최됐다.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展

1. 28~7. 27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제일 건축가 이타미 준(1937~2011, 한국명 유동룡)의 회고전. 1970년대 일본에서의 초기 작업부터 말년의 제주도 프로젝트까지, 40여 년에 걸친 그의 건축 세계를 총 6부의 연대기 형식으로 구성했다. 건축 스케치, 모델에서부터 회화, 서예, 공예품, 저술까지 건축과 예술을 넘나드는 작품 500여 점을 전시했다. 작가의 대표작 수평식미술관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감독 정다운의 영상도 상영한다.



이윤호의 B-CUT

본업: 생활하는 예술가展

1. 15~2. 22 두산갤러리 서울

신진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회 참가자가 공동 기획한 전시가 열렸다. '본업'은 예술활동을 의미한다. 작품 제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본업을 하는 젊은 작가 4명의 작가 권용주 안데스 이수성 이우성의 작품을 소개한다. 사진작가 이윤호가 촬영한 작품은 안데스, 이수성의 공동작업 <패배를 위한 기념비>. 전시장 한 쪽 구석에 천장까지 차지한 거대한 설치 작업은 견고한 벽의 이미지와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을 동시에 그려낸다. 안데스는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시작해 '매일매일 다르게 옷 입기'라는 자신의 취미를 예술로 확장한 과정을 이 전시에서 보여 주며, 이후 패션사업을 위한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이수성의 작업은 이 전시에 참여한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조하거나 잘 보이게 하는 기능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노동을 증명하는 듯한 메모와 드로잉들이 그에게 할당된 벽면에 걸었다.